

중고 전기차 출품량 7월比 2배 뛰었다...벤츠 267% '굉충'

중고차 플랫폼 첫차, 8월 온라인 경매장 데이터 분석 증가폭 벤츠·테슬라·기아·현대 順...안전성 논란 영향

중고차 플랫폼 '첫차'가 지난 8월 한 달간의 전기차 매입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화재 사건 이전인 7월 대비 전체 전기차 출품량이 2배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첫차는 8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온라인 내차팔기 서비스 '첫차옥션'을 통해 발생한 거래 데이터를 기반으로 전기차 매입 현황을 다각도로 분석했다.

지난 한 달 동안 온라인 경매장에 차량을 처분하기 위해 출품된 전체 전기

차 수는 7월 대비 98% 증가했다. 연식별로 살펴보면 2024년식 모델의 출품대수가 250% 증가해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났으며, 절대적인 비중은 2022년식이 가장 높다. 구매 이후 3년이 채 되지 않은 시점임에도 차량을 처분하려는 움직임이 눈에 띄게 늘어난 것으로 해석된다.

출품된 차량 상태에서도 같은 현상을 발견할 수 있었다. 전체 출품량 대비 주행거리가 5만km 미만인 차량의 비중은 72% 정도로 매우 높다. 통상 1만5천km-2

만km 사이를 연 평균 주행거리로 보는데, 이를 대입하면 운행한 지 3년이 채 되지 않았거나 차량을 교체할 컨디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처분하기를 희망하는 고객이 급증했다는 것이다.

브랜드별로 분석했을 경우, 메르세데스-벤츠의 전기차가 7월 대비 267% 많은 물량이 경매장에 출품되면서 가장 가파른 증가폭을 보였다. 화재 사건 이후 EQA, EQB를 제외한 대부분의 전기차에 중국산 배터리가 탑재됐다는 사실이 밝혀져 보유 중인 벤츠 전기차를 처분하고자 하는 니즈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뒤이어 테슬라 전기차 또한 225%로 대폭 증가했으며 기아 전기차는 169%

증가했다. 반면 현대 전기차의 출품량 변화는 5% 증가에 그쳤다.

이중 출품 대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모델은 기아 EV6다. 7월 대비 300% 증가하면서 판매하고자 하는 보유자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EV6 역시 8월6일 충남 금산에서 화재가 발생해 논란이 됐다. 전기차 화재의 중심에 있는 벤츠 EQE 역시 7월 대비 8월에 135% 가량 출품량이 증가했다.

첫차 데이터센터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까지 첫차옥션에 출품되는 전기차의 비중은 높지 않았다"며 "최근 전기차 안전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온라인 경매를 통한 전기차 매각 활동은 한동안 강세일 전망이다"고 밝혔다. /임채만기자



추석 대목 전통시장 북적...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맞아 앞둔 12일 오전 광주 북구 우산동 말바우시장이 명절 대목을 맞아 제수용품 구입하려는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김영근기자

“광주신세계서 가을 액티비티 준비하세요”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 윌슨·살로몬 호남 첫 입점

(주)광주신세계가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를 신규 입점해 선보인다.

광주신세계는 12일 “신관 지하 1층에 아메리칸 스포츠 브랜드 윌슨(사진)과 프랑스 아웃도어 살로몬을 호남 최초로 선보인다”고 밝혔다.

지난 1914년 미국 시카고에서 탄생한 윌슨은 세계 주요 리그에서 사용되는 농구공과 테니스공 등 공식 게임볼을 만들며 기술력을 인정 받았다. 이후 110년의 역사를 이어오면서 고유한 분위

기를 담은 의류를 출시했다.

가볍고 신축성이 우수한 소재를 활용해 일상에서는 물론 테니스 경기 등 다양한 활동 시에도 착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윌슨은 입점 기념으로 테니스 라켓을 구매한 고객들에게 줄을 조절하는 스트링 서비스를 제공한다.

오는 13일 문을 여는 살로몬은 1947년 프랑스 알프스에서 스키용품 생산하면서 이름을 알렸다. 현재는 의류와 신발 등을 생산하고 있으며 특히 세련된



디자인의 트레킹화 XT-6가 인기를 얻고 있다.

이정일 광주신세계 신관팀장은 “윌슨과 살로몬 등 인기 브랜드들의 호남 첫 매장을 선보일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고객 수요에 부응하도록 신규 브랜드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솔기자

소진공 광주호남본부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근절”

광양 5일 시장서 캠페인...상품권 사용법 안내 홍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광주호남지역본부(이하 소진공 광주호남본부)는 12일 “전날 광양 5일 시장에서 9월 동행 축제 및 추석명절을 맞이해 전통시장의 활력 제고와 소비자 신뢰 향상을 위한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근절 캠페인’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번활동은 소비자과가맹점대상으

로 온누리상품권의 올바른 사용법을 알리고 부정유통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더불어 카드형 온누리상품권 홍보 마케팅을 추진해 이용객에게 직접 앱의 활력 제고와 소비자 신뢰 향상을 위한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근절 캠페인’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번활동은 소비자과가맹점대상으

은 연말까지 지속될 예정이며, 충전식 카드형 온누리상품권 사용 독려 등 고객 신뢰 향상을 위한 여러 방안이 함께 추진될 계획이다.

이도열 소진공 광주호남지역본부장은 “온누리상품권의 부정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이번 캠페인을 통해 건전한 시장질서가 확립되고, 전통시장 상인과 소비자 보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은솔기자

해양에너지, 안전·운영 자문위 개최...광주비엔날레 단체 관람

(주)해양에너지는 12일 “전날 투자사인 맥쿼리인프라펀드 주최로 제3차 안전·운영 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참석자 100여명과 제15회 광주비엔날레를 단체 관람하며 성공 개최를 기원했다”고 밝혔다. (사진)



안전·운영 자문위원회는 맥쿼리인프라펀드가 투자한 회사가 함께 모여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중요 위험요인을 선정하고 체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장 위험성이 큰 Top 5 리스크 관리를 비롯한 회사의 WHSE(Work place Health·Safety·Environment : 작업장 보건·안전·환경) 사항 및 회사 운영 공통 이슈 사항 등에 대해 논의한다. 해양에너지는 2021년 맥쿼리인프라

펀드에 편입된 이후 WHSE 경영체제를 도입했으며, 각 회사 대표와 안전 임원 등 관계자들이 모여 매 분기 안전·운영 자문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특히 이번 위원회는 인천대학교, 서라벌도시가스㈜ 등 전국의 17개 사업법인 임직원들에게 광주 비엔날레를 소

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 (주)해양에너지는 지난 6월 제15회 광주비엔날레 ‘판소리, 모두의 울림’ 성공 개최를 기원하고 임직원 1천만원을 구입해 임직원 및 지역민들과 나누며 지역 축제 활성화와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했다. /정은솔기자

변하기 쉬운 신선제품
처음 그대로 신선도 유지 제품 개발 화재!

푸른도깨비 실제사용과 비사용의 비교

포도, 새우, 김치, 깍두기, 과일, 야채, 소고기, 굴비, 치즈, 조개, 생선 등 얼음 아이스팩을 넣어도 변질되기 쉬운 제품 1일이 넘으면 안심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젠 걱정 끝!

푸른도깨비 1팩만 넣으면 5일동안 신선함을 그대로 유지하는 제품이 개발되어 신선 제품을 택배로 발송하는 사업 후 여러분의 근심을 덜어드립니다.

1팩을 넣어서 택배를 발송하면 5일동안 변질이 없습니다. 처음 그대로 신선함을 유지시켜 줍니다. 1팩당 500원

푸른도깨비를 택배에 1팩을 동봉하여 발송하면 5일동안 변질없이 처음 그대로 유지됩니다.

식빵 부패실험 비교

방부제 미처리 식빵은 2일만에 곰팡이가 발생함. 푸른도깨비는 어떠한 세균도 발견하지 않는다.

1일차

2일차

4일차

사과 부패실험 비교

푸른도깨비를 처리한 농산물 및 과일에서는 곰팡이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2일차

4일차

5일차

7일차

공장, 택배물류센터 환영!

무료 신청

택배비 소비자 부담, 본사 메일로 신청 yunanbio@naver.com

전국 시도 총판 모집

대양식품(주)

본사

080-374-5046

기술제휴 | 자연과생명연구소

광주 지사

010-3738-8989

062) 525-7585